

만남·그리움·지혜... 깨침의 이야기들

문형렬 시인 '동자승 말씀이 기가 막혀', 창작동화·설화 리메이크 30편

소설가이자 시인인 문형렬(사진)가 새 봄보다 빨리 '봄소식' 같은 이야기로 찾아왔다. '가슴에 꽃불 하나 켜는 이야기'라는 설명과 함께 내놓은 새 책, <동자승 말씀이 기가 막혀>다. 동자승이 뭐라고 했기에 기가 막힌다는 걸까?

30편의 이야기로 묶여진 이 책의 제목이 <동자승 말씀...>으로 정해지기까지 말이 많았다고 한다. 도솔 출판사 임동현 주간이 이 제목을 고집했고 주변 '글쟁이'들은 반대했다는 것. 대중가요 제목의 패러디 같기도 하고 뭔가 산뜻한 이미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반대 요인이었다. 그러나 임 주간이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누군가 강하게 제목을 바꾸자고 어필했을 때 "차라리 책을 내지 않겠다"고 응수할 만큼 완고 했던 임 주간이 고집.

결국 임 주간이 이겼다. 반대론자들은 "책이 나온 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 고집이 이해됐다"고 백기를 들었다.

동자승. 독자들에게 동자승이 주는 이미지는 '순진무구'와 '애뜻함'일 것이다. 어린 나이에 절 생활을 하며 사람의 때는 묻지 않았지만 본성적으로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는 이미지 말이다. 그런 동자승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한마디 말의 울림은 깊고 그윽하다.

<동자승 말씀이...>에 실린 30편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 깊이와 그윽함으로 때 묻은 삶이 한 가운데 서 있는 독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해 준다. 사랑과 이별, 기쁨과 아픔, 나태해 지는 구도심을 꼭꼭 찢러대는 바늘 같은 재치... 이러한 '말씀'들이 살아 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고 살아갈 날들을 더 경건하게 만든다. 그래서 동자승의 말씀에 기가 막히는 쪽은 동자승이 아니라 독자다.

작가 문형렬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경전 속에 나오는 일화들이나 사찰 설화, 옛 스님들의 일화 등을 새롭게 구성해 색다른 '맛'을 가미해 냈다. 창작된 이야기들보다 패러디 된 듯한 옛 이야기들에 더



동자승 말씀이 기가 막혀
문형렬 지음
도솔 | 9500원

점이 가는 것은 순전히 시공을 초월해 '이야기 거리'를 끌어 모아 요리하는 작가의 솜씨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동자승은 스승에게 날마다 "술을 다시 걸 어라"는 호통을 들어야 했다. 아무리 잘 걸어도 잘못 걸었다고 다시 걸라고 호통이다. 그래서 술을 어떻게 걸어야 스승을 만족 시킬까를 궁리하고 또 궁리한다. 구정(九鼎)선사 이야기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은 물고기를 잡아 국을 끓이는 천렵꾼들을 만난다. 그 술 안의 물고기 국을 다 마시고 개울에 설사를 하니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는 오어사와 관련된 원효 대사와 혜명 대사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한다. 다시 이야기는 동자승의 고민으로 돌아온다. 동자승은 어떻게 술을 걸어야 절에서 쫓겨나지 않고 스승의 인가를 받을지 생각해 생각을 거듭하다가 거꾸로 걸어버렸다. 그러나 스승에게 얻어맞기만 했다. 그렇게 아홉 번째 술을 걸고 난 뒤, 동자승은 술을 꺼안은 채 깜빡 잠이 든다. 스승이 먹살을 잡고 호통을 친다.

"술은 어디다 걸었는가?"
"스승께서 걸으라고 하신 곳에 걸었습니다."

"그곳이 어디고?"
동자승은 어디다 술을 걸었을까? 아무 말 없이 술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 이제야 술을 걸 줄 아는구나."

<동자승 말씀이...>는 '사람의 향기를 잇는 다리, 만남' '사람의 추억을 잇는 다리, 그리움' '사람의 가슴을 잇는 다리, 지혜'를 테마로 각각 10편씩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몇 차례 눈을 지그시 감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는 안도현 시인은 "동자승은 세상에서 가장 해맑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내려다보며 비움이 무엇인지 인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한 까닭이지요"라 말한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달라이라마가 말하는 '마음과 생명'

"색맹의 경우, 색채 없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모양 없는 색채를 볼 수도 있습니까?"

"재미있는 지적입니다. 인간은 모양을 보는 능력을 잃을 때 또한 빛을 보는 능력을 잃게 되고, 그로인해 볼 수 없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1989년 가을, 미국 뉴포트에서 티베트 제 14대 달라이라마(덴진가초)는 서양의 신경과학자 및 정신의학자들과 만나고 있었다. 제 2차 '마음과 생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열린 것이다. 그 회의는 '의식(意識)'이란 주제를 두고 달라이라마와 서양학자들이 서로 묻고 답하던 되

묻고 다시 대답하는 형식의 열띤 토론이었다. 즉 '마음은 뇌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작용의 2차적 효과일 따름인가?' '의식이라는 존재는 너무 미세해서 오늘날의 자연과학은 아직 의식의 본질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가?' 등등의 난제들 사이에 놓고 서양과학과 불교철학의 대가들이 각각의 통찰을 '의식'이라는 심연의 바다로 부터 끌어 올리는 것이었다. 그 결과물들이 이 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달라이라마는 특히 이 책에서 불교의 정신적 과정들에 대한 경험적 관찰들을 조목조목 예로 들며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서양에 소개된 불교의 정체는?

현재 서양에 전해지고 있는 불교는 불교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모든 교리와 사상, 수행법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그리고 대승 불교중의 현교와 밀교를 모두 포함한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을 간추려 설명한 것이 <티베트불교입문>의 원작인 2001년에 출간된 <불교의 에센스>다. 원작의 책을 굿이 이번에 <티베트불교입문>이라고 바꿔 다시 출간한데는 그 이유가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들은 현재 서양에 전파된 불교 전체의 핵심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엄격히 말해 한국불교의 입장과는

사뭇 달라 국내 불자들에게 생소한 것 투성이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교리중에서도 티베트 불교와 연결되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섞어 티베트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이 책의 초반부는 사회적제와 인연법, 육바라밀 등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친숙한 불교의 핵심 주제들을 다뤘다. 중반부는 중관과 유가행, 불성, 보살의 우위와 십지 등 좀 더 깊이 들어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 4종 탄트라와 나로파의 6지 유가, 마하무드라 등 인도에서 티베트로만 전래돼 온 특유의 밀교를 소개했다. 김주일 기자



달라이라마, 과학과 철학의 만남
자라 호우쉬먼, 로빈슨, 앨런 윌리스 남영호 옮김
알음 | 1만2000원



티베트불교입문
달렉 캄핀 림포체 지음
유기천 옮김
청년사 | 1만6000원

지공 스님의 시에 담긴 중생에찬과 성불

<대승찬>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금류의 지공 스님(418~514)이 황제에게 지어 바친 글이다. 짧은 시구 속에 불교의 진수를 잘 표현한 <대승찬>은 제목 그대로 대승(大乘) 즉 대중(大乘)에 대한 찬탄을 노래한 것이다.

저자인 前 조계종 교 육원장 무비 스님(범어사 승가대학 학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인터넷 전법도량 영화실'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 <대승찬>을 알기 쉽게 강의해왔다. 이 책은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아 혼자서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돼 있다.



대승찬강설
무비스님 지음
불광출판부 | 9000원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 마음이 불만해오	법륜	정
2	옛거울을 부수고 오나라	성철	장
3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
4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
5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은우
6	꽃비	원성	마음
7	금강경 공부하기	정원구	해
8	유석학입문	오형근	대
9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	이연경	민족
10	도를 찾는 때만 고영이	영리 브뤼넬	솔바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인
불교서적총판 운주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2

영타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이전 제대로 알아!"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지은이/ 일광(逸光)
신국판 / 312쪽 / 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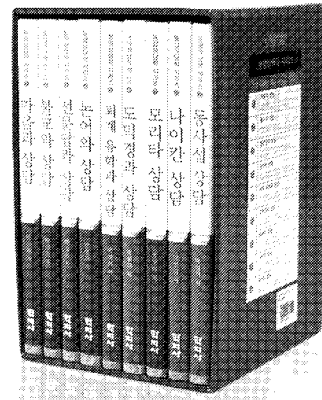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국내 최초로 동양상담에 주목하는

동양상담학 시리즈 ①~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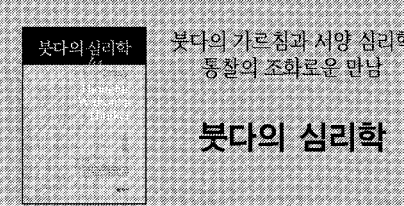


- ① 마음과 상담 ② 불교와 상담 ③ 선문답과 상담
- ④ 논어의 상담 ⑤ 퇴계 유학과의 상담 ⑥ 도덕경과 상담
- ⑦ 모리타 상담 ⑧ 나이칸 상담 ⑨ 동사설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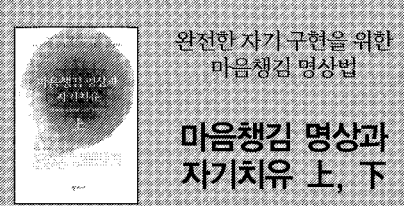
박성희 지 · 4×6판 · 양장 · 각권 7,000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유한 상담의 모습을 찾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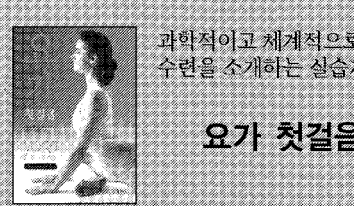
상담의 발상지가 서양이다 보니, 서양에서 들어온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담 지식을 찾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적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상담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스며 있는 삶에 대한 철학적 사상과 문화적 전통을 뒤보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시리즈는 이와 같은 고민의 발로이다.



붓다의 심리학
마크 엘스바인 지 · 권현수 외 공역
304면 · 신국판 · 양장 · 15,000원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상, 하
존 가렛 지 · 장현갑 외 공역
384/352면 · 신국판 · 반양장 · 각권 10,000원



요가 첫걸음
샌드라 앤더슨 외 공역 · 최우경 외 공역
252면 · 국배변형판 · 반양장 · 20,000원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